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 분석: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뉴스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양길석¹, 서수현², 옥현진^{3*}

¹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 ²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³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Analysis of Korean Adults' News Literacy Level: Focusing on News Use Behavior Based on Digital Media

Kilseok Yang¹, Soohyun Seo², Hyounjin Ok^{3*}

¹Professor,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²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³Professor,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요 약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뉴스의 수용, 생산, 공유 능력(뉴스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진단과 뉴스 리터러시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경변인(도시화 정도,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을 분석하고 뉴스 리터러시 관련 활동의 양과 뉴스 리터러시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집단 간 차이도 두드러졌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 관련 활동의 양과 뉴스 리터러시 수준 간의 상당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인 전반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성인 학습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 리터러시, 2020 언론수용자 조사, 디지털 미디어

Abstract The shift to the digital media era is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the ability to accept, produce and share news through digital media(news literacy), but there is a lack of diagnosis of the level of news literacy among Korean adults and discussions on how to improve news literacy. This study analyzed the news literacy level of Korean adults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urbanization degree,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news literacy-related practices and the level of news literac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level of news literacy among adults in Korea was not high and that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ignificant relevance between the amount of news literacy-related practices and the level of news literacy has also been identified. Based on th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the need for policy support to improve news literacy among Korean adults, the need to prioritize the resources of news literacy education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adult learners, and the need to continuously monitor news literacy levels of Korean adults.

Key Words : News literacy, Media literacy, Adult literacy, Media users in Korea 2020, Digital media

*Corresponding Author : Hyounjin Ok(ok@ewha.ac.kr)

Received January 23,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May 7,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20세기가 인쇄 미디어와 아날로그 미디어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과 휴대용 통신기기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 삶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당대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 즉 리터러시를 재개념화하고 리터러시의 교육 방식에도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세기까지의 리터러시 교육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문자와 인쇄 기반의 소통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양상이었다면, 21세기 리터러시 교육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같이 경험하고 학습해 나가야 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1, 2].

급변하는 의사소통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리터러시를 점검하고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각 구성원의 권익 추구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적 논의에 비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낮은 학술적 관심도와 달리 우리나라 성인들의 전반적인 리터러시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높다고 보기 어렵다[3]. 특히 전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리터러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고령 세대의 경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종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4, 5]. 더욱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수준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일은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실제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들의 리터러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뉴스의 생산 주체가 다양해지고 생산량도 급증하며 유통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뉴스의 홍수 속에서 부정확한 뉴스나 허위 뉴스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에 대한 유목적적·비판적 수용, 공유, 생산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21세기 리터러시의 핵

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6-8].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에 대해 신뢰할 만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언론수용자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984년 이후 매년 전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대규모 조사연구로서[9], 수집된 데이터가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고 수집 절차가 체계적인 만큼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을 진단하기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판단된다.

‘언론수용자 조사’의 자체 보고서는 주로 설문 문항에 대한 산술 통계 결과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에서처럼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변수를 설정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관련 데이터 일체를 공개하여 심층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본 연구 또한 그러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수행한 것이다. 이는 개인 연구자가 시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규모의 데이터를 토대로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방식의 하나라고 하겠다. 최근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12. 10. 시행)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국내 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공공 데이터 제공 책임관’을 두고 공공 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촉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배경변인과 뉴스 리터러시의 관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뉴스 리터러시에 관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요구의 상대적 우선순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활동 빈도와 뉴스 리터러시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리터러시의 발달은 지속적인 리터러시 활동(literacy practices)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10, 11] 뉴스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인터넷 및 인터넷 뉴스와 관련된 활동 빈도와와의 관련성이 나타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도시화 정도,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성인들의 인터넷 및 인터넷 뉴스 이용 빈도는 뉴스 리터러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뉴스 리터러시의 개념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라는 콘텐츠의 수용, 생산, 공유와 관련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라는 개념 자체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조명하고자 하는 능력은 1990년대 이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줄곧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6, 12]. 미디어 리터러시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 미디어, TV나 라디오와 같은 아날로그 미디어가 주를 이루던 시대에 이들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경계하며 이들 미디어의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대두된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뉴스 리터러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는 대체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유형으로 설명된다[8, 13].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는 뉴스 외에도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 방식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상위 개념이 있음에도 뉴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별개로 설정하여 조명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다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어서 뉴스 콘텐츠가 제작되고 유통되는 독특한 생태계나 뉴스 콘텐츠의 장르적 특성 등 뉴스 콘텐츠에 초점화된 능력을 조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는 민주사회를 지속하는 데 있어 핵심 역량의 하나로 간주되면서 교육적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6-8], 그 교육 내용을 정교하게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뉴스 리터러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2 뉴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그렇다면 뉴스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뉴스 콘텐츠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분명하고 유통 경로가 단순했던 20세기에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유목적적·비판적 수용 능력이 뉴스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급격한 발달로 뉴스의 생산, 유통, 수용 양상이 급변하면서 뉴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뉴스의 생산, 유통, 수용 양상의 변화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스 생산과

관련해서는 생산 주체의 급증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2019년 현재 'e-나라지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의 수는 9164건에 이른다(2005년 286건, 2010년 2484건)[14]. 시민들이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산하는 정보성 콘텐츠까지 뉴스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뉴스 생산자의 수와 뉴스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스의 유통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4.9%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11.7%가 SNS를 통해, 66.2%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지난 1주일간 뉴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종이신문 이용률은 10.2%, 언론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3%로 나타났다[9]. 본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처럼 우리나라 성인 다수의 뉴스 이용 양상이 인쇄 미디어 기반이나 아날로그 미디어 기반에서 디지털 미디어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뉴스 생산을 위한 미디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뉴스 이용자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뉴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그리고 알고리즘 기술이 뉴스 서비스에도 적용되면서 맞춤형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한편 뉴스에 대한 편식이나 편향이 강화될 우려도 커졌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의 복잡한 유통 생태계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뉴스에 접근하며, 뉴스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분석 및 평가하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누구나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뉴스에 대한 제작 및 공유 능력, 책임감과 윤리의식 등도 뉴스 리터러시의 개념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15, 16].

뉴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 대해 양정애 등(2015)의 연구에서는 뉴스 이해,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뉴스 활용,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등을 제안한 바 있다[6]. 이재원과 박동숙(2016)은 소셜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에 걸맞게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 구성요소를 뉴스의 필요성 인식, 뉴스 소비 능력, 뉴스 생산 능력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뉴스 소비 능력을 다시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와 뉴스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로, 뉴스 생산 능력을 뉴스 선별하기와 뉴스 공유하기로 구분하였다[12]. 비슷한 맥락에서 김

경희 등(2018)은 디지털 뉴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그 하위 구성요소를 뉴스 선택, 뉴스의 저장과 전달, 뉴스를 통한 의견 교류, 뉴스 생산 활동 참여, 뉴스 제작, 윤리의식 등으로 제안한 바 있다[17].

2.3 ‘언론수용자 조사’와 본 연구의 활용 문항

‘언론수용자 조사’는 미디어 이용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미디어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98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조사연구이다[9]. 조사 범주는 크게 각 미디어별 이용 행태(예: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용 여부, 텔레비전 이용 일수, 텔레비전 하루 이용 시간 등), 각 미디어별 뉴스 이용 행태, 언론과 뉴스 보도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인터넷을 이용한 뉴스 이용 행태와 관련된 조사 항목 중에서 뉴스 리터러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항을 선별한 후 이를 뉴스 수용(news acceptance)과 뉴스 공유(news sharing)로 범주화하였다.¹⁾ 앞서 논의한 대로 뉴스 리터러시가 뉴스의 수용, 생산, 공유와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로 구성된다고 할 때 ‘언론수용자 조사’에는 특히 뉴스 생산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이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뉴스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는 뉴스 리터러시를 보다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들을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연구 변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공개 자료이다. 이 조사는 면접원의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1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 참여자의 배

경변인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of the survey

Classification		n	%
Urbanization degree	Metropolis	2290	45.7
	Mid-sized city	2290	45.7
	County(Gun)	430	8.6
Gender	Male	2490	49.7
	Female	2520	50.3
Age	19-29	840	16.8
	30-39	785	15.7
	40-49	958	19.1
	50-59	1004	20.0
	≤60	1423	28.4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2760	55.1
	≤College graduates	2206	44.0
	≥Graduate school	44	0.9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earch variables

Variable	Content	Else	
Independent variable			
Background variable: Urbanization degree,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Internet usage time and internet news access t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ernet usage time group: High(30%), Low(30%) Internet news access time group: High(30%), low(30%) 	4 groups: LL, LH, HL, HH	
Dependent variable			
News literacy	News accep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nd and watch the news of an interesting field or subject Find and watch the news of a particular media company Search for articles I want to see Watch it through the pre-set news View com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5-point Likert scale •$\alpha=.74$ (5 items)
	News sh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st/share news(4 items) Express empathy(4 items) Comment(4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Yes=1, No=0 •Score: 0~12 •$\alpha=.81$ (12 items)

연구문제에 따라 독립변수로는 도시화 정도, 성, 연령, 학력의 4가지 배경변인과 인터넷 및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4개 집단)을, 종속변수로는 뉴스 리터러시(수용/공유)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인터넷 및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은 인터넷 이용 일일평균시간과 인터넷 뉴스 이용 일일평균시간에 따라 각기 백분위를 산출하고, 각각에서 상/하위 30%의 집단을 선정하여 다음(인터넷 이용 상/하 집단, 인터넷 뉴스 이용 상/하 집단), 이를 조합

1) 구체적으로 수용 측면의 문항은 ‘인터넷 포털 뉴스 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본다.’, ‘인터넷 포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본다.’, ‘보고 싶은 기사를 검색 창에서 입력해 찾아서 본다.’,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 뉴스, 구독 뉴스 등)를 통해 본다.’, ‘뉴스를 볼 때 댓글도 함께 본다.’이다. 공유 측면의 문항은 ‘내가 본 뉴스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다.’, ‘내가 본 뉴스나 뉴스 댓글에 공감 표시를 했다.’, ‘내가 본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이다.

하여 총 4개의 집단을 설정하였다. 즉, 인터넷과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 둘 다 적은 집단(하-하, LL), 인터넷 이용 시간은 적으나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은 많은 집단(하-상, LH), 인터넷 이용 시간은 많으나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은 적은 집단(상-하, HL), 둘 다 이용 시간이 높은 집단(상-상, HH)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이처럼 인터넷 이용 시간과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을 구분한 것은 전체 인터넷 이용 시간 중 뉴스와 관련된 활동량의 차이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종속변수 중 뉴스 리터러시의 수용 측면은 인터넷 뉴스 이용 행태와 관련된 5개 문항(5점 Likert 척도)을 5점 평균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alpha=.74$). 공유 측면의 조사문항은 네 가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유형별(포털, 메신저, SNS, 동영상) 세 가지 공유 활동(뉴스의 게시 및 공유, 공감 표현, 댓글 달기)의 경험 여부(유=1, 무=0)를 묻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alpha=.81$) 활동 유형별로 0~4점씩 총 0~12점으로 변환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뉴스 수용, 뉴스 공유)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0.326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분석 방법

독립변수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수용/참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성에 따른 성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을, 도시화 정도와 연령대 및 학력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F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4개 집단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 수준 차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용과 공유의 두 영역별로 일원분산분석(F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은 모두 SPSS 25.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4. 결과

4.1 문항별 응답 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를 뉴스 수용과 뉴스 공유의 두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뉴스 수용의 평균점수는 2.62점으로 나타났으며(5점 척도), 뉴스 공유의 평균점수는 0.55점(12문항 합산 12점 만점 체제에서의 평균)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평균점수는 Table 3과 같다.

뉴스 수용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인터넷 포털 뉴스 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본다.'(3.05점)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 뉴스, 구독 뉴스 등)를 통해 본다.'(2.27점)였다. 공유와 관련된 세 문항의 평균 점수(각 4점 만점)는 '내가 본 뉴스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다.'(0.22점), '내가 본 뉴스나 뉴스 댓글에 공감 표시를 했다.'(0.21점), '내가 본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0.12점)이며 댓글 달기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공유 활동의 점수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Results by each item

Variable	Item	Mean	SD
News acceptance	Find and watch the news of an interesting field/subject	3.05	0.94
	Find and watch the news of a particular media company	2.48	1.00
	Search for articles I want to see	2.78	0.99
	Watch it through the pre-set news	2.27	1.04
	View comments	2.49	1.03
News sharing	Post/share news(0~4 points)	0.22	0.63
	Express empathy(0~4 points)	0.21	0.60
	Comment(0~4 points)	0.12	0.45

4.2 배경변인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

성인의 배경변인(도시화 정도, 성, 연령, 학력)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 차이를 수용과 공유로 대별하여 검증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뉴스 리터러시의 수용과 공유 측면 모두에서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시화 정도의 경우 뉴스 수용은 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의 양상을 보였으며, 뉴스 공유는 중소도시>대도시>군지역의 양상을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뉴스 리터러시 수용과 공유 모두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뉴스 수용에서는 20대=30대=40대>50대>60대의 양상이었으며, 뉴스 공유에서는 20대>30대>40대>50대>60대로 각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엔 뉴스 수용과 공유 모두에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집단이 고졸 이하의 학력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대학원=대학>고졸 이하).

Table 4. Differences in news acceptance by background variables

Classification		N	M ⁺	SD	t / F	Post-hoc
Urbanization degree	①Metro	1723	2.62	0.71	16.42***	①,②>③
	②Mid-sized	1670	2.65	0.69		
	③County	283	2.39	0.68		

Gender	Male	1936	2.66	0.71	4.43***	-
	Female	1740	2.56	0.69		
Age	①20~29	754	2.75	0.68	55.71***	①②③>④>⑤
	②30~39	730	2.78	0.66		
	③40~49	843	2.67	0.67		
	④50~59	780	2.50	0.68		
	⑤≤60	569	2.30	0.72		
Academic Background	①≤High	1616	2.43	0.67	105.5***	②,③>①
	②College	2021	2.76	0.69		
	③Graduate	39	2.72	0.79		

*** p<0.001 +Likert scale(5 points)

Table 5. Differences in news sharing by background variables

Classification		N	M ⁺	SD	t / F	Post-hoc
Urbanization degree	①Metro	2290	0.51	1.19	23.58***	②>①>③
	②Mid-sized	2290	0.65	1.65		
	③County	430	0.17	0.73		
Gender	Male	2490	0.59	1.51	2.28*	-
	Female	2520	0.50	1.28		
Age	①20~29	840	1.16	1.94	109.2***	①>②>③>④>⑤
	②30~39	785	0.95	1.79		
	③40~49	958	0.61	1.44		
	④50~59	1004	0.29	0.98		
	⑤60~	1423	0.11	0.54		
Academic Background	①≤High	2760	0.23	0.87	164.5***	②,③>①
	②College	2206	0.93	1.78		
	③Graduate	44	1.18	1.85		

* p<0.05, *** p<0.001 + 0~12 points

4.3 인터넷 및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를 수용과 공유 측면으로 구분한 뒤 4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사후검증 결과, 인터넷 이용 시간과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 모두 높은 집단(H-H)은 인터넷 이용 시간이 높지만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이 낮은 집단(H-L)과 모두 낮은 집단(L-L)에 비해 뉴스 수용과 공유 수준이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모두 낮은 집단(L-L)은 나머지 3개 집단보다 낮은 뉴스 리터러시 수준을 보였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인터넷 이용 시간은 적으나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이 많은 집단(L-H)과 인터넷 이용 시간은 많으나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은 적은 집단(H-L) 간의 비교에서 수용과 공유 모두 전자(L-H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Table 6. Differences in news literacy by internet usage time and internet news access time

Classification		N	M ⁺	SD	t / F	Post-hoc
News acceptance	①Low-Low	414	2.17	0.64	98.14***	④>③>① ②>①
	②Low-High	37	2.69	0.76		
	③High-Low	127	2.47	0.64		
	④High-High	631	2.87	0.65		
News sharing	①Low-Low	740	0.14	0.53	61.89***	④>③>① ②>①
	②Low-High	41	0.56	1.50		
	③High-Low	206	0.52	1.11		
	④High-High	637	1.20	2.13		

*** p<0.001 + News acceptance: Likert scale(5 points) / News sharing: 0~12 points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는 수용 측면의 평균점수가 2.62점(5점 척도), 공유 측면의 평균점수가 0.55점(총 12점 만점)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수용 측면에 비해 공유 측면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문항별로도 평균점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향후 뉴스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좋은 참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화 정도,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간 수준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정된 자원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저연령대보다는 60대 이상의 고연령대, 도시지역보다는 군지역,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인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적 요구에 먼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뉴스 리터러시 관련 활동의 양과 뉴스 리터러시 수준 간의 정적인 관련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뉴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신뢰할 만한 최신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것이란 점에서 향후 증거기반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와 학술적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20년 정부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18]. 하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게 리터러시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리터러시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리터러시 활동을 통해 발달한다는 점에서 인프라 개선만큼이나 성인들이 뉴스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인 학습자들의 리터러시 수준 편차는 초중등 학습자보다 커서 표준화된 집단교육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정확한 수준 진단 시스템과 한층 세분화된 수준별 교육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동편의성이 높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대면학습이 여의치 않은 성인들을 위해 비대면 개별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는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성이 높은 문항들을 보완하여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뉴스 리터러시 관련 정책과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이용 양상은 빠른 속도로 인쇄 미디어 기반에서 디지털 미디어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뉴스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자신의 뉴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식, 자신의 뉴스 편향 여부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한 노력 등)과 관련된 문항이 향후 조사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우리 국민의 뉴스 리터러시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점에 대비한 평균점수만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다소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수준의 실체는 초중등 학습자 또는 대학생과의 비교, 국제수준의 비교, 추이 비교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입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이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주도하거나 가교문항 설정을 통해 뉴스 리터러시 수준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뉴스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에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통해 우리 국민의 뉴스 리터러시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Y. Kim & D. Choi. (2020). Digital literacy competency modeling for cyber university adult learn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3), 885-908.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3.885>
- [2] H. Kim & J. Shim. (2020). Digital literacy of elderly people and soci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30(2), 153-180.
- [3] OECD (2013). *OECD skills outlook: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Paris: OECD Publishing. DOI: 10.1787/9789264204256-en
- [4] H. Ok. (2014). Exploring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literacy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Literacy.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49, 73-103. DOI: 10.26589/jockle..49.201403.73
- [5] J. Park, H. Ok & J. Kim. (2017). A survey of expert opinion on adult literacy curriculum development. *Writing Research*, 35, 7-38. DOI: 10.31565/korow.2017..35.001
- [6] J. Yang, S. Choi, & K. Kim. (2015). *News literacy education: Curriculum and support system*. Seoul: Communication Books.
- [7] S. Won & Y. Yoon. (2016). A study on news literacy education program in the digital age. *KSW*, 11(4), 101-111. DOI: 10.21097/ksw.2016.11.11.4.101
- [8] H. Jeong et al. (2016). Media literacy as 21st century key compet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211-238. DOI: 10.22251/jlcci.2016.16.11.211
- [9] Korea Press Foundation (2020). *Media users in Korea 2020*.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10] H. Chung. (2008). Changes of literacy and model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a semiotics perspectiv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6(4), 149-172. DOI: 10.15708/kscs.26.4.200812.007
- [11] K. Yang, S. Seo & H. Ok. (2020).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activity and digital literacy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5), 639-664. DOI: 10.24159/joec.2020.26.5.639
- [12] J. Lie & D. Park. (2016). Re-conceptualization of news

literacy in the social network journalism era.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32(2), 171-206.
DOI: 10.16935/ejss.2016.32.2.006

- [13] S. Yang et al. (2014). *Digital society and commun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14] Statistics Korea (2020). *Registration status of periodicals*. <https://www.index.go.kr>
- [15] J. Lee. (2021). Exploratory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provision of universal lite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ra of fake new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1), 85-106.
DOI: 10.4275/KSLIS.2021.55.1.085
- [16] S. Lim. (2020). The necessity and plan for emphasizing information ethical accountability in fact-checking of 'Fake News.' *Journal of Ethics*, 131, 127-154.
DOI: 10.15801/je.1.131.202012.127
- [17] K. Kim et al.(2018). *Digital media literacy*. Paju: Hanulmplus.
- [18] Joint of related ministries of Korea (2020). *Press release: 'Digital world without exclusion' blueprint confirmed*. South Korea Policy Briefing. <https://www.korea.kr>

옥 현 진(Hyounjin Ok)

[장학원]



- 1998년 2월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문학사)
- 2009년 8월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epartment. of Curriculum & Instruction(Ph.D.)
- 2013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E-Mail : ok@ewha.ac.kr

양 길 석(Kilseok Yang)

[장학원]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00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평가 전공(교육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
- 관심분야 : 검사개발/프로그래밍가
- E-Mail : ksyang@catholic.ac.kr

서 수 현(Soohyun Seo)

[장학원]



- 2001년 2월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문학사)
- 2008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전공(교육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리터러시 교육
- E-Mail : seosoo@gnue.ac.kr